

한국인과 디지털시대

미국 MIT의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를 지난달 만났다. 그는 '디지털 문명의 진도사'로 불리는 석학. 학문적 깊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디지털 문명에 대한 탁월한 식견은 이미 세계적 인정을 받고 있다.

짧은 방한 기간 동안 그는 포항공대를 방문해 교수진과 식사를 함께 하며 미래전망을 설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상악화로 헬기 이동이 불가능했고 서울 신라호텔에서 하루를 '일 없이' 지내야 했다. 이때 기자가 단독으로 만났다. 당초 그와는 헬기로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동하는 도중 약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눌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상(機上) 인터뷰'는 집중도나 커뮤니케이션의 강도가 떨어지는 것. 날씨 덕에 2시간 가량 점심을 겸해 단독 대담을 나누게 된 것은 그의 생각을 보다 진지하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디지털은 과학기술의 일부이다. 하지만 20세기 말과 21세기의 초입, 디지털은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화두가 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네그로폰테교수도 말했지만 생명공학과의 접합이 시도되는 등 디지털은 점차 과학기술에서 차지하는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네그로폰테교수와의 대화 내용을 일부 소개한다.

■ 하루 일과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침 일찍 눈을 뜨면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수시로 이메일을 확인한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메일박스(mail box)를 각각 1개씩 갖고 있다. 하루 평균 사적인 메일은 약 1백개 정도, 공적인 메일은 2백개 정도 받는다.”

■ e메일이 한통도 오지않는 날이 있다면...
“그렇다면 윈이 없겠다(웃음). 그렇지만 e메일이 빠질 날은 없다. 휴가를 가 있을 때도 계속 확인하고 있다.”

암기위주 교육 개선돼야

그는 e메일은 사람 사는 세상의 '소식'과 같다고 덧붙였다. 형태만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차이라는 것이다.

■ 한국의 교육이 일방적인 주입식 암기식으로 위험하다는 경고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국교육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과거 한국의 교육을 살펴보면 상당히 엄격했고 암기위주였다. 암기는 확언하건대 '과거의 방식'이다.”

“한국교육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과거 한국의 교육을 살펴보면 상당히 엄격했고 암기위주였다. 암기는 확언하건대 '과거의 방식'이다.”

■ 좀더 자세히 말씀해주시지요.
“교육은 특이한 점이 있다. 태어나서 5세까지는 놀이를 통해 배우게 되는데

6세부터는 모든 것을 중단하라는 강요를 받게된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은 19세기적 방식이다. 디지털시대에는 더 이상 이 방식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놀면서 배우는 형태의 교육이 되어야만 쌍방향 인터렉션(interaction)이 가능하다. 실천하고 행동해야 강력한 배움이 되는 것이다. 한가지 생각할 것은 선생님들이 과연 이같은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는가이다. 선생님들이 먼저 디지털시대의 배움에 대해 배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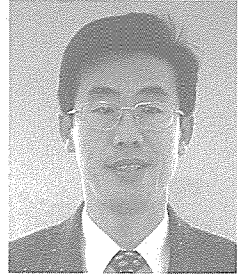
■ 그것은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점인가요.
“일본·중국·한국 다수의 아시아국가에 해당하는 공통된 문제다. 이들 국가는 사회가 상당히 엄격하다. 일본은 확실성을 강조하고 다르면 안된다고 교육한다. 한국은 일본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 엄격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중국·한국 다수의 아시아국가에 해당하는 공통된 문제다. 이들 국가는 사회가 상당히 엄격하다. 일본은 확실성을 강조하고 다르면 안된다고 교육한다. 한국은 일본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 엄격하다는 생각이 든다.”

■ 그렇다면 조상을 숭배하고 전통을 따라야 하는 유교문화권의 아시아 국가는 디지털문화와 상충하는 문화배경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다... 그런 충돌은 일어날 수 있다. 맹목적으로 어른을 따라라...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면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애들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다... 그런 충돌은 일어날 수 있다. 맹목적으로 어른을 따라라...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면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애들

디지털문명의 전도사인 미국 MIT의 니콜라스 네그로폰테교수는 한국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묻자 “디지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 아침 3백개 정도의 이메일을 받는다는 그는 향후 5년 내에 등장할 새로운 과학기술은 반도체와 생명공학이 결합하는 산업과 상식을 지닌 컴퓨터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와 무선 테크놀로지의 결합이라고 예견했다.



崔壽默
〈동아일보 경제부 차장〉

은 눈에 띄어야 하지만 소리를 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요즘은 달라졌다. 아이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는 추세다. 미국이 장기적인 경제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 많은 책임을 지우기 때문이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어리면 모른다’ ‘어리면 무지하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오류라고 할 수 있다.”

■ 거액이 투자된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이리둠(68개 인공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서 하나의 휴대전화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한 국제휴대전화)이 최근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성과가 없는 연구에 거액을 투입하는 것은 연구개발자들의 ‘욕심’ 아납니까.

“이리둠은 작동중이며 서비스만 중단한 것이다. 이는 마케팅의 실패이지 기술의 실패는 아니었다. 잘 작동되는 위성이 서비스 중단되는 것은 아이러니컬하다. 연구종사자들은 지식의 진보를 원하고 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니다. 열정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상상력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력이 뛰어나고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

■ 최근 한국방문에서 달라진 점을 들자면...

“짧은 시간 머물다 보니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큰 변화가 있다는 점을 감지할 수 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대기업에서 근무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고 있다. 4년 전만 해도 대기업 가려는 대졸자가 90%였지만 지금은 10% 뿐이다. 지금은 창업이나 벤처행을 선택하는게 대세다.”

젊은세대 대기업 기피현상

■ 젊은이들의 벤처행은 일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도전’ 일까요.

“졸업생들에게 리스크는 없다. 3년 후에 망한다 해도 무언가 교훈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잃을 것이 없다. 사회는 지금 그들에게 실패자라는 낙인도 찍지 않는다. 위험이 없는 것이다. 망해도 다시 직장을 찾을 수 있다. 여러 문화권에서 많은 부모들은 ‘너희는 위험을 피하며 살거라’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대기업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되기를 바란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많은 문화권이 이 안정이라는 요소를 대단히 중요시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다. 사회와 부모들도 안정성 보다 우선시 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 한국이 21세기에 강점을 보일 산업분야는 무엇입니까.

“한국은 역사적으로 제조업에 강했다. 한국의 강점은 ‘점진성’이다. 역사적으로 점진적 발전에 강한 힘을 보였다. 다만 전혀 새로운 것을 시작(창조)하는데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

■ 향후 5년 내에 등장할 과학기술의 위대한 발명을 3가지만 들어주시지요.

“반도체와 생명공학이 결합되는 산업이 생길 것이다. 예를 들면 게놈프로젝트가 진행중인데 이를 해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두번째는 상식을 지닌 컴퓨터의 등장이다. 지금은 강아지보다 상식이 못미친다. 세번째는 새로운 에너지와 무선테크놀로지의 결합이다. 전자제품이 작고 무선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원이다.” 한국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달라는 마지막 부탁에 네그로폰테교수는 잠시 생각하다 “디지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어른들은 변화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네그로폰테교수의 이야기는 인터넷을 포함한 디지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반에 던지는 언중유골(言中有骨)이 담겨있는 듯 했다. ⑤7